

KT&G 백복인 사장 연임주총 앞두고 논란

# KT&G생명-영진 합병, 독성검출 '쉬쉬' 200억 과다계상

신약후보물질 'KL1333' 논란 지속  
"독성 검출엔 개발중단·평가가치 '0'"  
R&S바이오, 영진에 손해배상 요구



백복인 KT&G 사장.

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이 합병을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복인 KT&G 사장이 연임을 위해 자회사 간의 무리한 합병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오는 16일 KT&G의 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백 사장의 연임 안건을 놓고 주요 기관투자자 사이에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아토피 치료제인 유도마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판권을 사들였던 R&S바이오가 영진약품에 손해배상을 요구 중이다.

당초 이 계약은 KT&G생명과학이 체결했지만 영진약품에 흡수합병되면서 영

진약품이 손해의무를 지게 됐다.

한 관계자는 "KT&G생명과학은 영진약품과의 합병을 계약한 이후 판권계약을 맺었지만 영진약품의 허가는 없었다"며 "회사가치에 영향을 미칠 중대계약으로 합병철회 사유에 해당하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KT&G생명과학의 처리가 시급했던 KT&G 입장에서 이런 지적들을 무시하고 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KT&G생명과학은 전환우선주 투자자들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2015년 말까지 기업공개(IPO)를 해야 했지만 무산됐고, 투자자들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적자에 자본잠식 상태인 KT&G생명과학을 대신해 KT&G가 부담을 져야 했다.

실제 KT&G생명과학은 합병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IPO를 해야 했지만 경영성과와 이익규모에서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바이오벤처나 중소형제약사 등과의 합병을 고려했지만 계열회사와의 합병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해 영진약품과 합병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G생명과학의 합병가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약후보물질인 'KL1333' 역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KL1333'는 미토콘드리아 이상 질환 치료제로 전비임상독성시험 중 독성이 검출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재시험한 결과로 200억원이 넘는 가치평가를 내렸다.

제약업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독성이 검출되는 경우 개발은 중단되며 평가가치는 '제로(0)'가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다른 임상 기관에 재의뢰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조작성위로 보고 있다.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신약후보물질 독성실험에서 독성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라며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임상 기관을 바꿔가면서 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KT&G 백 사장의 연임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자회사 관련 분식회계 감리에 자회사 합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연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출석 주주의 2분의 1이 찬성해야 하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KT&G는 국민연금이 지분율 9.09%로 1대 주주, IBK기업은행이 6.93%로 2대 주주다. 여기에 외국인 지분율이 53.1%에 달한다.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은 적극 반대 의사를 표했다.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외국인 표심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의결권 위임이 3%도 안될 정도로 의사결정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의결권 자문기관마저 ISS는 찬성인 반면 글래스루이스는 반대를 표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 간에도 좋은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찬성을, 서스틴베스트와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백 사장 연임에 반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수도권 신도시·택지 5만가구 공급

택지지구 추가지정 없어... 희소성 ↑



올봄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관심을 끄는 아파트는 어떤 곳이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아파트 물량을 우선 공략하라고 조언한다.

올해 수도권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선 5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분양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15년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는 위례와 검단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시흥장현, 하남감일지구 등의 막바지 공급이 예정돼 있다.

1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5만3320가구(임대, 오피스텔 제외)가 분양된다. 지역별로는 검단신도시가 1만2521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위례신도시 5493가구, 양주 옥정지구 4131가구, 하남 감일지구 3163가구 등이다.

수도권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직후인 2015년 10만 5585가구 분양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어 2016년 6만6093가구, 2017년 4만5569가구 등으로 줄었다. 그동안 경기도 광교, 파주 운정, 미시강변 등 주요 신도시와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이 마무리됐다.

이제는 택지지구 추가 지정이 없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동탄2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등도 올해 거의 분양

완료돼 신도시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단지로는 시흥 장현지구 B-4블록, B-5블록에서 제일건설(주)은 '시흥 장현지구 제일풍경채 에듀&센트' 75·84㎡ 1187가구를 이달 말 공급할 예정이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이달 한양산업개발(주)이 B10블록에서 '테라스 더모스트 동탄' 84㎡, 140가구를 분양한다. 또 (주)모아종합건설은 이달 화성 송산그린시티 EAA10블록에 '송산신도시 모아미래도 에듀포레' 84·99㎡ 585가구를 분양한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주)동일과 (주)동일스위트가 Ac-06블록과 Ac-07b블록에서 '김포한강신도시 동일스위트 더파크(The Park)' 84㎡ 1732가구를 이달 분양한다.

2년 만에 분양을 재개하는 위례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이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877가구를 오는 6월, 하반기에는 GS건설이 '위례신도시 자이' 559가구, 현대엔지니어링이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107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 도시재생사업 수혜株... "올해 고성장 전망"

### 株라쿨라의 종목

#### 희림

수익성 높은 해외매출비중 확대에  
50조 규모 도시재생사업 수혜 예상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신규로 건설 예정인 공항만 178개에 달하는 만큼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11일 "고부가가치 특수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희림'이 국제 입찰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희림은 건축설계와 건설사업관리(CM)를 병행하는 국내 유일의 상장 업체다. 현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강릉 아이스타레나 등 공공시설 뿐 아니라 대학병원, 호텔, 아파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 연구원이 주목한 점은 수익성이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베트남 룡탄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국제현상 설계공모에서 최종 당선돼 올 상반기 300억원 가량의 설계 수주가 예상된다"며

(희림 재무재표 분석)

(단위:%, 배)

재무비율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b>성장성</b>					
- 매출액 증가율	0.1	2.9	14.1	12.5	15.2
- 영업이익 증가율	흑전	-22.4	60.4	20.2	24.4
- 순이익 증가율	흑전	-41.1	83.2	63.0	35.3
<b>수익성</b>					
- ROIC	6.8	4.1	11.7	13.8	16.1
- ROA	2.6	1.5	2.8	4.7	6.3
- ROE	8.0	4.4	7.8	11.8	14.3
<b>안정성</b>					
- 유동비율	143.1	126.6	148.9	157.9	172.6
- 부채비율	197.9	193.5	160.6	139.5	117.8
- 이자보상배율	2.5	2.0	3.0	4.5	6.4

↳/자료=리서치알음

"연내 100억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 설계 수주 역시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난해 8%에 불과하던 해외매출 비중이 올해 15%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유가 상승으로 중동지역의 공공발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 분석했다.

국내 사업분야 역시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총 예산 5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국 500여 곳의 노후주거지역을 개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같은 공공건축물 건

설에 향후 5년 동안 매년 10조원 규모가 투자될 예정이다.

최 연구원은 "희림은 업계 최고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후청사 복합 개발사업,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용역 등 관련 수주를 잇따라 따내고 있다"며 "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도 잦은 지진과 대형 화재 발생으로 건축물 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희림에는 긍정적이라 평가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희림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과 함께 적정주가 69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54.5% 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손임지 기자 sonimji301@

## LH, 주택상품 개발 위해 고객설계평가단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객 니즈를 반영한 주택상품 개발을 위해 고객설계평가단(LH-파트너스)을 도입한다.

고객설계평가단은 1년 단위 기수제로 운영된다. 아이디어 제시, 도면 검토 등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 LH 공공분양아파트의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하게 되며, 참여도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우수 평가원은 다음해 평가단 참여가 보장된다.

만 25세 이상 55세 미만의 SNS, 블로그 등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고 평소 공동주택 설계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유사활동 경력자, 건축전공자, 신혼부부, 3세대둥거, 다자녀가구 등을 우대한다.

한편 고객설계평가단은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김윤성 LH분양주택개발부장은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객설계평가단을 도입하게 됐다"며, "LH 공공분양주택에 고객맞춤형 주택설계가 적용되어 고객만족도가 높아지고 주부 등 경력단절자 채용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국내주식형 펀드, 인덱스 펀드 자금유출로 순자산 감소

### 주간펀드 동향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순자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나타난 영향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3월 2일~8일)간 코스피지수는 주 초 미국발 통상전쟁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제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호재로 작용해 상승

반전한 결과 전주 대비 0.24% 상승한 2433.08포인트를 기록했다. 해당기간 개인은 6156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 결과에서는 대형주(0.77%)에서만 전주 대비 상승세가 나타났다.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은 0.03% 소폭 상승했다. 다만 순자산은 5130억원 감소했다. 지수 하락에 베풀리는 '인덱스주식코스피200'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가장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0.6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에서 일본(-3.48%) 및 인도(-4.21%) 펀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순자산은 700억원 감소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액티브주식섹터 유형인 '하나 UBSIT코리아증권투자신탁1[주식]Class C5'(2.15%)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펀드는 신흥아시아주식으로 분류되는 'KB 중국본토A주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C-E CLASS'가 한 주간 1.9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린 펀드로 나타났다. /손임지 기자